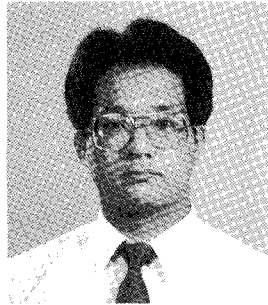


사료곡물가 폭등에 따른 축산 방향



허 덕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 머리말

대략적으로 이상적인 조사료 : 농후사료의 비율을 50 : 50 또는 60 : 40으로 보고 있는데, 낙농육우산업의 경우 그 비율이 33 : 67로 농후사료의 의존율이 매우 높다. 이렇듯 농후사료 위주의 사양으로 대표되는 우리 나라 축산은 최근의 국제 사료곡물가격 폭등으로 커다란 타격을 받고 있다. 작년부터 몇 차례 사료가격이 인상되었지만, 앞으로도 당분간 지속적인 사료가격의 인상이 불 보듯 뻔히 보이기 때문에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진다.

축종별로 생산비에서 차지하는 농후사료의 비중을 살펴보면, 번식우(송아지 생산)의 경우 생산비의 23.9%, 중소비육 16.3%, 비육우 육성장기비육 20.1%, 낙농 31.7%, 자돈 43.3%, 비육돈 49.8%, 계란 58.0%, 육계 56.4%이다. 즉, 국제 사료곡물가격 폭등으로 낙농육우부문에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특히 중소가축부문에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국제 사료곡물가격 폭등의 영향을 비육

절감과 품질 고급화라는 양 측면에서 전망하고, 그 대응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고 기술하고자 한다.

2 국제 곡물가격 폭등과 축산물 생산의 비용절감

1) 국제 사료곡물 수입 이전단계 및 국내 유통단계에서의 비용절감

지금까지 우리 나라 축산이 수십 년간 이어져 내려오는 동안 수 차례 국제곡물가격의 폭등을 경험하여 왔다. 그 때마다 각종의 비용절감을 위한 방법이 제시되어 왔으나, 이번에도 또다시, 종래와 별다른 내용의 변화도 거의 없이, 제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선 반성해 보아야 할 것이다. 반복의 감이 없지 않지만, 국제 사료곡물이 우리 나라 축산농가의 손에 들어와 축산물이 생산되기까지의 과정을 따라 가면서 비용절감의 여지를 검토해 보자.

국제 사료곡물가격이 상승하면 국내 사료가격의 인상으로 곧바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언제나 제기되는 문제가 국제 사료곡물 구매방법상의 문제와 사료산업구조의 문제

및 관세이다.

국제 사료곡물 구매방법상의 문제란 주로 사료곡물 도입제도상의 문제로 요약되며, 여기서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 도입곡류사료의 공개경쟁입찰제도이다. 현재와 같은 국제곡물시장 상황하에서 이러한 구매방법은 대량구매에 따른 유리성 확보 면에서 장점이 있지만, 자주 적정 구매시기를 놓쳐버린다는 지적이 있다.

그 개선 방안으로 자유경쟁 원칙 하에 실수요자의 직접구매 또는 실수요자 단체의 요청에 의한 구매체제로의 전환이 제시되고 있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사료원료 도입의 자유화를 통해 국내 종합상사들의 곡물시장에 적극 진출을 유도, 전문가 양성과 산지 선물시장에의 적극 진출 내지 현지구매, 베이스(Basis) 거래, 장기구매계약 등 다양한 구매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도입사료 곡물과 구입 상대국도 다양화 내지 다변화함으로써 급격한 곡가 상승에 의한 피해를 분산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런데 이러한 구매방법의 변경은 임기응변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될 것이며, 국제사료곡물 가격 동향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분석이 전제되지 않으면 안된다.

한편, 지금까지 우리가 구입한 사료 원료는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공통적인 것(conventional feeds)으로서 비교적 가격이 비싸다. 현재 가격이 폭등되고 있는 것들도 이에 속하는 곡물이다. 따라서 이같은 사료 원료를 가지고 배합사료의 원가를 절감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에서 생산되는 사료원료 중에서 카복박, 고무박 등 일부 독성을 포함한 비공통적인 것(non-conventional feeds)이 있는 데, 이들이 함유한 독성물질을 적당히 처리하면 우수한 대체 곡류자원이 될 수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은 비공통적인 사료 원료는 영양소함량도 높고 가격도 매우 저렴하다는 것이다.¹⁾

물론 이같은 사료원료를 도입하려면 사전에 국내에서 엄격한 실증시험을 거쳐야 할 것이며, 이들을 사료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개발해야 할 것이다.

사료산업 구조의 문제란 사료시장이 비효율적인 구조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산업조직론적인 시각에서, 시장구조가 그 시장에 존재하는 기업들의 행동양식을 결정적으로 규정하고, 이에 따라 시장성과가 규정되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경쟁정도가 효율 면에서 중요한 지표가 된다. 전의 연구²⁾에 의하면 배합사료산업은 독점적 경쟁(Monopolistic Competition) 또는 핵심과정(Core Oligopoly)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이들 사료업체들의 광고나 기술개발에 투자하는 금액의 비중이 타산업에 비해 낮은 반면 이윤율은 타산업에 비해 안정적이고 높아 손쉽게 이윤을 획득하고 있으며, 유통단계가 비교적 짧음에도 불구하고 운송비용이 높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따라서 비효율적인 사료산업의 시장구조를 개선함으로써 비용절감을 도모해야 함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이다.

지난 5월 말을 기하여 발표된 사료용 5개 단미사료에 대한 무세적용 조치로 어느 정도 관세와 관련된 문제의 해결에 접근하였지만, 근본적으로 사료용 곡물을 비롯한 축산용으로 수입되는 전 생산요소에 대하여 무세화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 한가지 중요하게 지적되어야 할 것이 부가가치 영세율의 전면 적용인데, 이에 대해서는 그동안 줄곧 문제가 제기되어 왔던 것으로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될 일이다.

2) 국내 대체사료 생산의 비용절감

다음으로 수입 농후사료를 대체할 부조자원 개발의 문제인데, 대체 부조자원에는 조사료를 비롯하여 농후사료 또는 단미사료 등이 있다.

1) 신행태, 사료곡물의 안정적 공급방안, 「국제사료곡물 가격 동향과 전망」 심포지움결과 보고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6. 10.

2) 전만형, 배합사료산업의 시장조직에 관한 연구, 중앙대 대학원, 1994. 6.

국내 조사료 생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초지에서의 목초 생산인데, 각종 법적·사회적 제약요건 및 기술적 제약요건 때문에 이미 조성된 초지의 관리가 부실하고, 초지 개발도 크게 제약받고 있다. 이러한 제약요건들은 초지 개발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낙농육우부문에 있어서 조사료 생산 확대의 문제는 지금까지 줄곧 제기되어 왔던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로, 종래와는 달리 조사료 증산을 위한 주변 여건이 많이 달라졌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지만, 문제의 심각성은 상존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대략적으로 검토해 보자.

조사료는 그 출처에 따라 국내 생산의 경우 벣짚, 사료포 및 논 뒷그루, 초지가 있으며, 해외에서 들어오는 수입조사료도 있다. 우선 벣짚의 경우를 보면, 소규모 논농사 겸업농가를 중심으로 자체 이용도 거의 포화상태에 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일부 구입벣짚의 경우도 이미 그 가격이 매우 높은 수준에 와 있어 더 이상의 확대여지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더욱이 현 상황에서 벣짚과 같은 저급 조사료보다는 양질의 조사료를 더욱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조사료로서의 벣짚의 추가적 개발·이용가치는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단, 벣짚의 사료적 가치를 위한 처리방법은 계속적으로 개발·보급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논 뒷그루 사료의 경우를 살펴보자. 1980년대 후반 이후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이 연 2~3%씩 감소하고 있는데 따라 식부면적 감소율도 최근 5년간 연평균 3~5% 정도씩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휴경면적도 증가하고 있어 논 뒷그루 이용에 의한 사료의 생산이라는 관점에서는 호기라고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단, 이를 위해서는 작부체계상의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여야

하고, 쌀 부문과 연계된 적극적인 사료정책의 전개가 요구된다. 아울러 사료포의 적극이용에도 힘을 쏟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조사료 생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초지에서의 목초 생산인데, 각종 법적·사회적 제약요건 및 기술적 제약요건 때문에 이미 조성된 초지의 관리가 부실하고, 초지 개발도 크게 제약받고 있다. 이러한 제약요건들은 초지 개발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즉, 산림법 등 10여개 법률에 의해 산지이용이 제약되고 있으며, 관련부처간의 이해상충, 산지소유의 영세성, 초지 개발을 위한 노동력의 절대부족, 농가의 낮은 생산성, 연구개발·보급체계의 취약성 등 수많은 현안문제를 안고 있다. 조사료 개발을 위하여 휴경지 조사료 단지화사업, 조사료 공급기지 설치, 해외에 조사료 공급기지 건설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는 있지만, 그 사업의 추진이 그다지 효율적이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양축가의 조사료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실질적으로 양축경영에 도움을 주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것이 해외로부터의 조사료 도입이다. 도입방법에는 직접수입과 개발수입이 있는데, 도입과정에서 비용절감을 위해 노력해야 함은 물론이고 양질 조사료에 대한 관세 인하 내지 면세, 저급조사료 수입의 최대한 억제 등이 필요하다고 보겠다.

3. 조사료에 의한 배합사료 대체의 경제성

이처럼 조사료 개발의 진척이 늦은 이유로, 사회적·제도적·기술적 제약 및 구입 및 운반의 불편성 등의 다른 요인도 중요하게 작용하고는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경제성에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조사료 생산비 또는 수입가격보다 배합사료를 이용하는 것이 경제적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아직까지 국제 사료곡물가격의 앙등이 없었던 1992년의 조사료 생산비 또는 수입조사료의 TDN Kg당 가격을 살펴보면, 국내생산 옥수수만이 배합사료보다 낮을 뿐 다른 조사료는 배합사료보다 높다(표 1). 이로 볼 때 사료가격의 지속적 앙등으로 기타

조사료의 상대적 경제가치가 제고될 것이며, 따라서 국제곡물 가격 폭등에 따른 조사료 증산의 유인이 분명히 있는 것이다.

표 1. 조사료 TDN Kg당 생산비 비교(1992)

단위: 원/TDN Kg (%)
 *)내는 배합사료 대비 비율임 자료: 축협중앙회

목초	옥수수	수단 그라스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호맥	배합사료	수입 알팔파류*	벗집
365 (139)	189 (72)	317 (121)	279 (106)	430 (164)	262 (100)	408 (156)	375- 480 (142- 183)

그러나, 국제 사료곡물가격 폭등 때문이 아니라, 조사료: 농후사료비율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조사료 원의 확대는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아가야 하며, 우리 나라 축산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과제인 것이다.

농후사료와 조사료 비율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조사료의 생산성을 높여야 하는데, 생산성 증대를 위해서는 조사료의 단위당 수량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즉, 단위당 생산비를 절감하는 방법으로는 품종개량으로 인해 원초적으로 수확량을 늘리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이미 조성된 조사료원의 생산관리를 철저히 하여 단위당 수확량을 늘릴 수도 있을 것이며, 제한된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법 등도 있을 것이다.

4. 국제곡물가 상승과 축산물 품질고급화

이번에는 우리 나라 축산의 기본방향 중의 하나인 축산물 품질 고급화에 있어서 국제 사료곡물가격의 폭등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검토해 볼 차례이다. 먼저 한우부문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고급육 생산을 위해서는 사육기간의 연장이 필수적이라는 점이다.

필자가 작년에 한우에 대해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³⁾ 일반육

생산에 비해 고급육 생산의 경우가 비육기간이 5개월 정도 길게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소의 생리상 육성단계까지는 급속한 체중의 증가를 보이지만, 큰 소가 된 이후에는 성장속도가 떨어진다. 고급육 생산이란 결국 성장이 거의 완료된 시점에서 육질을 숙성시키는 기간을 더 필요로 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육질 숙성기에는 사료효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료곡물 가격의 폭등으로 고급육 생산이라는 방향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사료곡물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기간동안에는 생산비 상승으로 육질 고급화의 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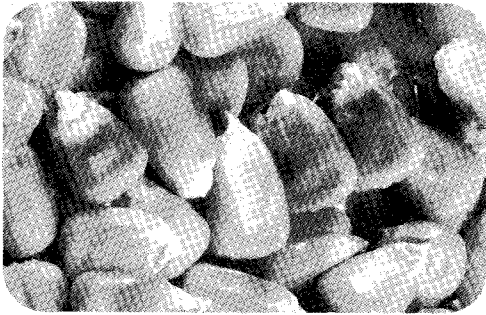
단, 한우의 육질고급화에는 조사료 또한 커다란 공헌을 하는 것으로 밝혀져, 종래의 농후사료 위주의 사양방법을 조사료 다량급여 방식으로 개선하여 육질 고급화를 이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 기대해 본다.

또한, 육질고급화를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다양한 기술적인 방법이 존재하며 반드시 농후사료만으로 육질을 개선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고급육 생산에 관한 한 수입 농후사료의 비중이 그리 크지 않은 고급육 생산방법이 상대적으로 진척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낙농부문에 있어서 품질고급화란 주로 원유의 위생품질의 향상을 의미한다.

낙농부문에 있어서 농후사료 다량급여가 유량의 증가에는 크게 공헌했으나, 이면에는 번식성적 저하, 질병 다발로 인한 생산성 저하라는 결과를 초래했다. 반면, 원유의 위생적인 품질은 사양관리, 그 중에서도 특히 유방염과 관련이 깊다. 따라서, 조사료원의 확충이 생산성 향상을 통한 비용절감과 연결된다면, 원유의 위생품질을 높이려는 노력이 품질 고급화의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볼 수 있으며, 원유 품질 고급화를 위해 농후사료가 기여하는 부분은 그리 크지 않은 것 같다. 오히려 조사료를 다량급여함으로써 사료요구율을 개선할 수 있어,

3. 허 덕 외 3인, 「쇠고기 수입자유화에 따른 한우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 R331, 1995. 12



낙농산업정상화의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농후사료만으로 사육되는 중소가축의 경우에는 두말할 나위 없이 수입농후사료가 아닌 국내산 농후사료 또는 단미사료로 고급화를 유도하는 것이 유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국제사료곡물가격의 폭등으로, 중소가축의 수출산업으로 육성이라는 측면에서 다소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러나, 이같은 사정은 수출대상국(주로 일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여서, 수출산업으로의 육성이라는 방향을 전환해야 할 만한 충분한 요인은 발견되지 않는다.

5. 조사료 생산과 품질고급화에 있어서 노동력의 추가소요 문제

여기에서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조사료 생산과 품질 고급화를 동시에 달성하려고 할 경우 축산농가의 노동력 부담이 가중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낙농의 경우를 보면, 현재 낙농부문에 투자하고 있는 노동시간이 두당 평균 2146시간⁴⁾으로, 일본에 비해서도 2배정도, EU에 비한다면 4.2배 정도 많은 노동력을 투자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유의 품질고급화를 위해서는 좀더 세심한 사양관리, 즉 추가 노동력 투자를 요구하며, 또한 조사료생산에도 추가의 노동력 투자를 요구한다면 주어진 노동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될 지도 모른다는 우려에서이다.

결국, 주어진 노동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용하느냐?의 문제가 남게 되며, 이는 노동의 생략화 문제로 귀결된다. 개별 경영의 입장에서만 본다면 조사료 및 착유관리의 기계화 이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겠으나, 정책의 차원에서 노동력 부담의 경감에 도움이 될 만한 방도를 찾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방법의 하나로 조사료 부문을 경영에서 분리하는 방법을 들 수 있다. 즉, 그 첫 번째 방법으로 조사료 공급기지를 건설, 거기서 생산된 조사료를 농가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으로 국내·외에서 생산된 조사료의 유통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농가가 직접 생산하지 않더라도 구입에 의해 조사료를 쉽고 싸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다.

6. 맺는 말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국제 사료곡물가격의 폭등으로 우리나라 축산의 기본 방향, 즉 낙농육우산업의 방어적 경쟁력 제고, 중소가축산업의 수출산업으로 육성이라는 방향을 수정할 만한 커다란 요인을 발견하지 못했다. 다만 비용절감을 위한 노력과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한 방법상에서 다소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관련된 문제의 해결을 서둘러야 할 때라고 생각된다.

과거에도 이와 같은 국제 사료곡물가격 폭등으로 인한 고비가 몇 차례 있었지만, 그때마다 우리 축산농가들은 슬기롭게 헤쳐 나왔다. 이번 사료곡물가격 폭등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알 수 없지만, 빠른 시일 내에 끝났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번 파동을 어려움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축산업 정상화 및 효율화의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지혜가 절실히 요구된다. ☹

○필자 상담처:(02)962-7311

4. 축협중앙회, [1994년도 축산물생산비조사보고], 1995.